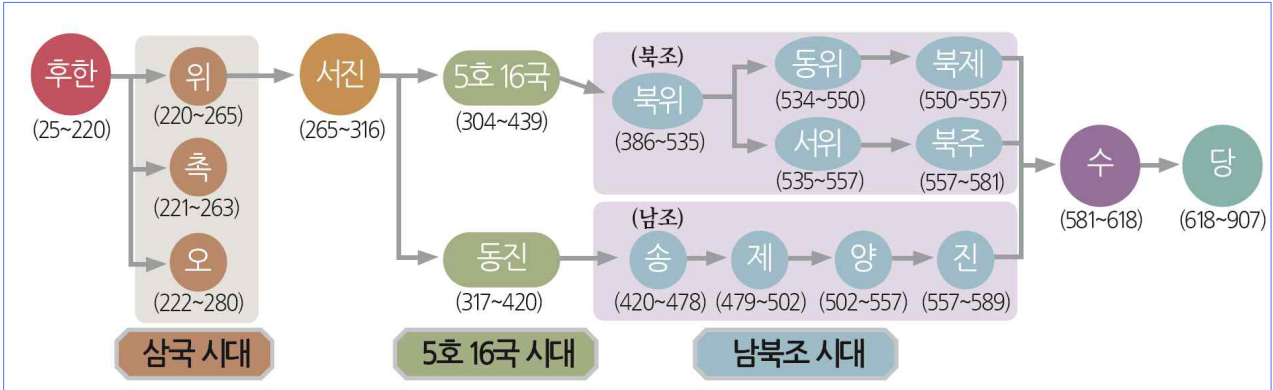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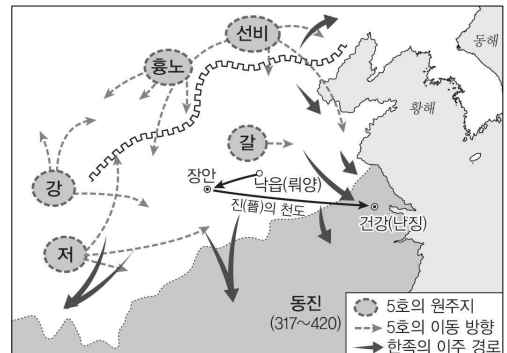
# 중국의 역사 - 위·진 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220 ~ 589) - 중국 문화권의 확대]



## 01. 삼국 시대(220 ~ 280) → 후한 멸망 후 삼국의 정립(鼎立)

- 화북의 위(魏, 조조), 사천의 촉한(蜀漢, 유비), 강남의 오(吳, 손권)의 대립
- 위가 촉 병합(263) → 사마염(司馬炎), 진(晉) 건국(265) → 진(晉)이 오(吳) 병합(280)



<5호의 이동과 민족의 남이>

## 02. 5호 16국(五胡十六國) 시대(304 ~ 439)

- 서진(西晉) 왕실의 내분  
↳ 5호(선비·흉노·갈·저·강)의 침입과 화북 점령
- 서진의 강남 이동 → ★건강(= 난징)에서 동진(東晉) 건국(317)

북위의 효문제는 튀양으로 천도하고 한족의 문물을 수용하는 한화 정책을 실시하여 선비족에게 한족의 성씨를 쓰게 하였으며,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조 시대에는 북방 민족(호족)과 한족의 문화 융합(호한 융합)이 촉진되었다.

## 03. 남북조 시대(439 ~ 589)

- 1) 북조(화북 지방, 양쯔 강 이북)
  - 북위(선비족 탁발씨, 386 ~ 535)의 화북 지방 통일(439)
  - 효문제(孝文帝, 재위 471 ~ 499)  
: 낙양 천도(493), ★적극적 한화정책[중국식 관제와 복제, 황실의 성씨(원씨)], 균전제 실시(485)  
: 전통적인 선비족 귀족층의 반발로 효문제 사후 귀족들 간에 내분 발발
  - 서위(535 ~ 557) · 동위(534 ~ 550)로 분열 → 북주(557 ~ 581) · 북제(550 ~ 557)로 계승
- 2) 남조(강남 지방, 양쯔 강 이남)
  - 한족의 강남 이주
  - 정치 불안정, 빈번한 왕조 교체  
↳ 동진(317 ~ 420) → 송(420 ~ 478) → 제(479 ~ 502) → 양(502 ~ 557) → 진(557 ~ 589)

## 04. 사회와 경제

### 1) ★문벌 귀족 사회

- 위(魏), **구품중정제** 실시(220)  
: 호족의 관직 독점으로 문벌 귀족 사회 형성
- 문벌 중시, 보학 발달

#### ◎ 9품중정제(九品中正制)

각 주(州)와 군(郡)마다 중정관(中正官)이 자기 지역의 인물을 평판과 덕망, 재주 등을 살펴 9등급으로 평가하여 추천하면 국가가 이를 바탕으로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였다.

### 2) 호족의 대토지 소유 억제

- 북위(北魏), ★**균전제** 실시(485) → 민생 안정 + 자영농 육성
- 토지 정책

둔전제 (위)	• 조조가 군량 문제 해결을 위해 허창(許昌) 지구에서 실시한 제도로 국가가 농민들을 모집하여 소작료를 받고 경작시킨 제도 → 균전제 형성에 영향
점전제 (서진)	• 대토지 소유와 노비 소유를 제한하는 한편, 국가가 농민에게 정해진 토지를 지급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의무적으로 경작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정착과 토지 개간을 꾀한 정책
균전제 (북위)	• 국가가 성인 남녀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여 호족의 대토지 소유를 견제하고 민생의 안정과 조세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나, <b>노비와 경작용 소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여 이를 소유한 호족 층이 그만큼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b> 당(唐) 균전제의 기초가 되었다.

### 3) ★강남의 개발 촉진

- 한족의 이주로 벼농사 보급 → 강남의 경제력 증가
- 경제·문화적 중심지로 성장

## 05. 문화

### 1) 약 300여 년간의 분열 시대로 정치적으로 혼란했지만 문화적 성과를 거둠

- 불교(지식인), 도교(종교), 문학과 예술(유교의 속박 탈피)
- 남조와 북조에서 각기 다른 문화 발전

### 2) 불교의 발달

- 불교의 중국화 진행
- 5호(胡), 북조 왕실의 국가적 보호  
↳ ★**원강(대동, 460), 둔황 막고굴, 룡먼(493~) 등 대규모 석굴 사원 조성**
- 명승 배출

구미리습	344 ~ 413	• 서역 승려, 불경 번역
법연	342 ~ 423	• 동진, 인도 순례, 『불국기』 저술(416)
달미	? ~ 528	• 선종의 개조

## 중국의 역사 - 위·진 남북조 시대

### 3) 도교

- 북위 구겸지(? ~ 448)의 이론 정립  
: 도가 사상 + 신선 사상
- 현세의 행복과 불로장생 기원 → 종교, 예술 생활에 영향
- 북위(386 ~ 534)의 국교(國敎)

### 4) 청담[淸談, 세속의 명리(名利)를 떠난, 맑고 깨끗한 담화(談話)] 사상 유행



<죽림칠현(竹林七賢)>

- 노장 사상 유행
- 지식인의 ★현실 도피적 경향  
↳ 염세적, 개인적 향락 추구
- 현학(玄學) 풍조 유행  
: 유교 경전도 노장 사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
- 서진(西晉, 265 ~ 316)의 죽림칠현  
: 산도, 왕융, 유령, 완적, 완함, 혜강, 향수

### 5) 문학

- 4·6 변려체의 문장 유행  
: 도연명(365 ~ 427)의 『귀거래사(歸去來辭)』  
: 소명태자(501 ~ 531)의 『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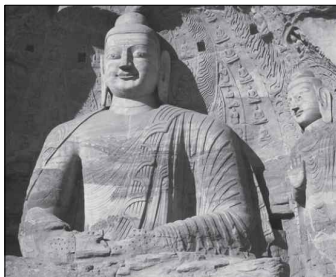


<여사집도(당 대 모시본)>

### 6) 미술

- 왕희지(동진, 303 ~ 361), 서예
- 고개지(동진, 344 ~ 406), 『여사집도(女史箴圖)』
- 석굴 사원 등 불교 미술 발달

#### ◎ 남북조 시대의 문화(『천제고교서』, p.42)



북조 문화에는 유목민의 강건한 기풍이 가미되었고, 국가적으로는 유교를 존중하였다. 불교는 국가나 문벌 귀족의 보호를 받아 융성하였는데, 원강·릉면 석굴 사원으로 대표되는 불교 미술도 꽃피었다.

남조에서는 문벌 귀족 사회가 전개되었고 노장사상이 주목받으면서 세속을 떠나 인물과 철학을 논하는 청담 사상이 유행하였다. 청담 사상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죽림칠현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민간 신앙과 도가 사상이 융합된 도교가 경전을 갖추고 발전하였다.



▶ 5세기의 동아시아 정세



▶ 구품중정제의 문벌 귀족 사회

유익이 아뢰었다. “지금 중정관을 두어 구품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의 높고 낮음이 그의 뜻에 달려 있어 임금의 권세와 은혜를 제멋대로 가지고 놀며 천자의 권한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상품(上品)에는 천한 가문 출신이 없으며, 하품(下品)에는 권세가가 없다고 합니다.”

- 『진서』

▶ 『귀거래시』

돌아가려다. 세상 사람과 교류를 끊고 세상과 나는 서로 인연을 끊었으니 다시 벼슬길에 올라 무슨 구할 것이 있으리오.

개념 Check

- ① 진(晉)이 혼란한 틈을 타 5호가 화북에 침입하여 여러 나라를 세우면서 ( ) 시대가 전개되었다.
- ② 구품중정제는 호족이 관직을 독점하면서 ( )으로 성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 ③ 위·진·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발달하면서 ( ), 룡먼 등에는 대규모 석굴 사원이 만들어졌다.
- ④ 북위 효문제의 ( ) 정책은 유목 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융합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⑤ 북위에서 자영농 육성을 위해 실시한 ( )는 수·당으로 계승되었다.
- ⑥ 남조에서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떠나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 ) 사상이 유행하였다.
- ⑦ 동진 말 도연명은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보여 주는 ( )라는 작품을 썼다.

## 중국의 왕조 - 수(581 ~ 618)

[수(隋)의 중국 통일(589 ~ 618)]

### 01. 문제(양견, 재위 581 ~ 604)

- 북주의 외척 양견이 권력을 빼앗아 수(隋) 건국 → 남조의 진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재통일(589)
- 구품중정제 폐지 → ★과거제(선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여(587) 문벌 귀족 세력 약화
- 중앙 집권 강화, 귀족의 사병 소유를 금지하여 군사력 강화
- 균전제, 조·용·조 세법, 부병제 정비 → 국가 재정 안정, 군사력 강화, 당(唐)에 계승
- 개황(開皇, 연호) 율령 제정
- 대흥성(大興城) 건설, 운하 광통거(廣通渠) 설치(584)

### 02. 양제(양광, 재위 604 ~ 618)

- 운하 통제거(通濟渠)를 설치하여 화북 ~ 강남을 잇는 ★대운하 완성  
: 강남 지방의 세금 운반, 남북 간 물자 유통과 경제 통합 강화  
: 대규모 토목 사업에 따른 인력 동원 → 농민과 지방 세력의 반발 초래
- 적극적인 대외 진출 추진  
: 돌궐 공략(北)  
↳ 기미 정책[동돌궐 ~ 서돌궐 이간질, 돌궐 토착 세력을 지역의 우두머리로 임명]  
: 안남(베트남 북부) 정벌  
: 4차례(598 · 612 · 613 · 614)의 ★고구려 원정 실패

#### ▶ 대운하



양제 대업(大業) 원년(605)에 황허 강 남쪽의 여러 군에서 남녀 백여 만 명을 징발하여 통제거(通濟渠)를 만들었다. …… 대업 4년(608)에 다시 황허 강 북쪽의 여러 군에서 백여 만 명의 백성을 징발하여 영제거(永濟渠)를 만들었다. …… 성인 남자만으로는 모자라서 부인들까지 노역에 동원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 『통전(通典)』

### 03. 멸망

- 무리한 대외 정복 전쟁과 대규모 토목 공사  
: 2대 38년 만에 멸망(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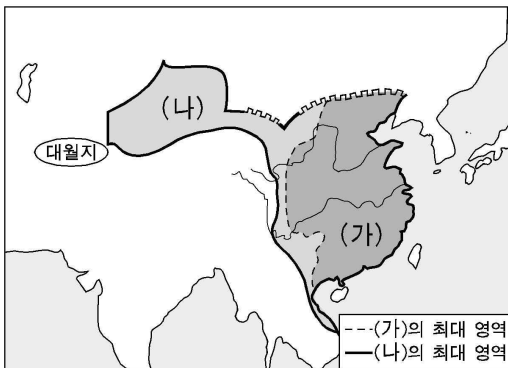
▶ 수 · 당

370여 년간 분열된 중국을 통일한 수(隋)는 2대 38년 만에 멸망하였고, 뒤이어 당(唐)이 건국되었다. 당은 귀족적, 국제적 문화를 형성하여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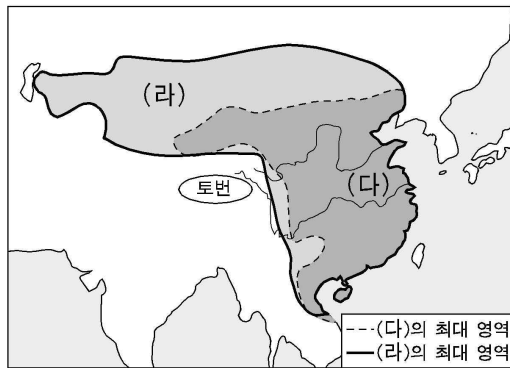
발해, 신라, 일본, 남조와 토번 등은 당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당은 중앙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 중국의 연속 왕조



(가) -  
(나) -



(다) -  
(라) -

개념 Check

- ① 수 문제는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 )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② 수 양제는 ( )를 완성하여 남북 간 물자 유통과 경제 통합을 강화하였다.

## 중국의 왕조 - 당(618 ~ 907)

### [발전과 쇠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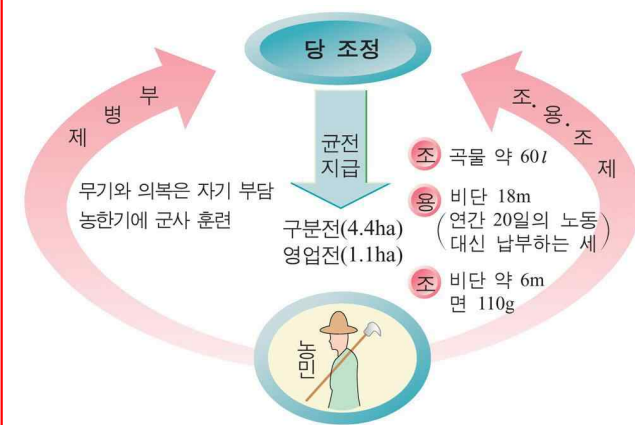
#### 01. 고조[①, 이연(李淵), 재위 618 ~ 626]

- 장안(長安)에 도읍(618)하고 중국 통일(621)

#### 02. 태종[②, 이세민(李世民), 재위 626 ~ 649]

- 현무문의 변(玄武門之變, 626) → 태자, 동생을 살해하고 집권
- ★정관(貞觀)의 치세(治世)[貞觀之治]
  - : 중앙(3성 6부제), 지방(주·현), 율령 체제 완성(639), 과거제 정비
  - :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의 세법 정비
  - : 제도 개혁과 정비, 당(唐)의 기초 확립

#### ▶ 당의 기본 제도



#### ※ 균전제

- 영업전(永業田) : 세습 토지
- 구분전(口分田) : 60세 반납

#### ※ 조·용·조의 세법

- 조(租) : 토지세
- 용(庸) : 노역
- 조(調) : 특산물

#### ※ 부병제

- 농병일치의 의무병제

- 영토 팽창
  - : ★동돌궐·토번·위구르 제압, 신라와 동맹 체결(648)
  - : 서역 지방 장악 → 비단길 경영권을 확보하여 동서 교류 촉진

#### 03. 고종[③, 재위 649 ~ 683]

- 서돌궐 정복,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660)와 고구려(668) 멸망
- 공영달, ★『오경정의(五經正義)』 완성(653)

#### 04. 무·위의 화(690 ~ 710)

- 측천무후(則天武后, 고종의 황후)의 집권
  - : 황제 즉위(690 ~ 705), 주(周) 건립
  - : 불교 숭상, 과거 출신자를 중용하여 귀족 세력 약화
- 위황후(韋皇后)의 집권과 권력 전횡
  - : 중종[④, 재위 683 ~ 684·705 ~ 710]의 황후, 중종 독살(710)



<측천무후>

## 중국의 역사 - 당(618 ~ 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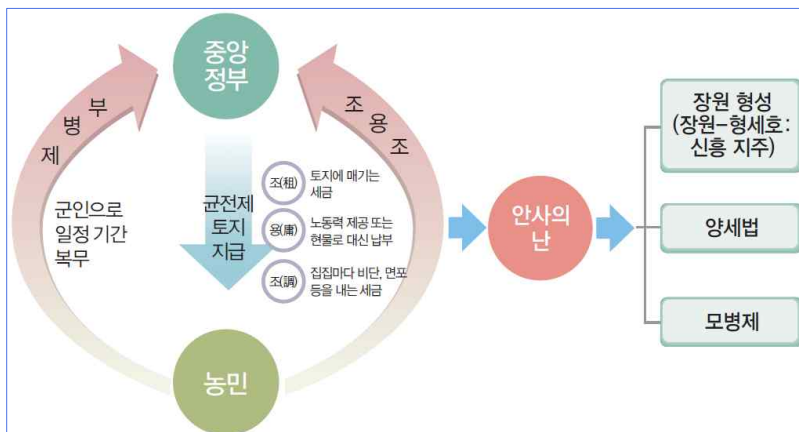
### 05. 현종[⑦, 이융기(李隆基), 재위 712 ~ 756]

- 개원(開元)의 치세(治世), 713 ~ 741  
: 무후·위후 시기에 누적된 폐단 척결
- 천보(天寶, 742 ~ 756)의 쇠(衰)  
: 환관 고력사(高力士) 신임  
: 비(妃) 양옥환(양귀비) 총애
- 당(唐) 문화의 성숙기, 귀족 정치의 전성기

천보 4년(745) 양옥환은 귀비로 책봉되었다. 황제의 총애를 받은 덕분에 그녀의 친족들은 벼락출세를 하였다. 그중 **재상이 된 양국충**은 안녹(록)산을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려다가 안녹산의 반란을 초래하였고, 황제를 모시고 피란 가던 도중에 양귀비와 함께 죽음을 맞았다.

### 06. ★안·사(安史)의 난(755 ~ 763)

- 배경  
: ★절도사(번진의 군사·재정·행정 3권 장악, 710) 세력의 성장  
: 양국충(楊國忠)의 권력 전횡
- 전개  
: 천보 14년 절도사 안녹산(703 ~ 757)이 범양(范陽)에서 반란 → 뤼양(洛陽) 점령 → 고선지 장군의 장안(長安) 진출 저지 → 안녹산의 장안성 함락(756) → 안경서의 사주로 안녹산 피살(756) → 사사명(? ~ 761)의 지휘권 계승 → 사조의의 사사명 살해 → 당군(唐軍)의 사조의의 군대 격파(763)
- 결과(당의 사회·경제적 변화)



### 07. 쇠망

- 번진(藩鎮) 절도사들의 독자적 지배권 강화 → 중앙 정부의 통제력 약화, 환관과 관료의 권력 다툼
- 장원(莊園) 증가 → 농민 몰락 → 황소의 난(875 ~ 884) 등 농민 봉기 발발로 쇠퇴 가속
- 위구르, 토번 등의 침입으로 정복지의 대부분 상실
- 절도사(節度使) 주전충에게 멸망(907)  
↳ 5대 10국 시대 전개(907 ~ 960)

# 중국의 왕조 - 당(618 ~ 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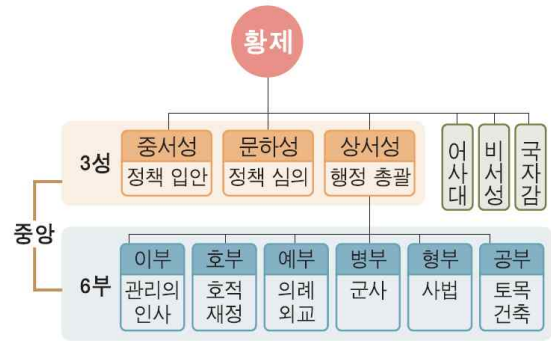
## [통치 제도]

### 01. 율령 체제 확립

- 율(형법) · 령(행정법) · 격(율령의 보충 규정) · 식(시행 세칙)
- : 일본 나라, 통일 신라, 발해 등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

### 02. 행정 조직

- 3성(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6부
- 경조(京兆) 장안(長安) → 부 → 10도 → 주 → 현



### 03. 과거 제도

- 수(隋)의 선거제 계승
- 6조 문벌 귀족들의 관직 독점 폐단 시정
- : 향공 → 성시 → 전시[銓試, 이부 주관, 신언서판(身言書判)]
- : 관리 임명권의 이부(吏部) 장악으로 문벌 귀족의 요직 독점

### 04. ★균전제(均田制)

- 북위 → 북주 · 수(隋) → 당(唐) 대 완성
- 정남에게 영업전(營業田, 세습 허용), 구분전(口分田, 60세 반납) 지급
- 토지와 농민을 일체로 파악 → 농민을 토지에 묶어 조세(조 · 용 · 조) 징수, 병역 부과
- 자연농 육성, 중앙 집권을 위한 경제 기반 마련

## [사회와 경제]

### 01. 사회

-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
- : 과거의 최종 선발 과정에서 문벌을 중시하여 귀족들이 유리한 평가
- : 관직 독점, 각종 특권 향유

### 02.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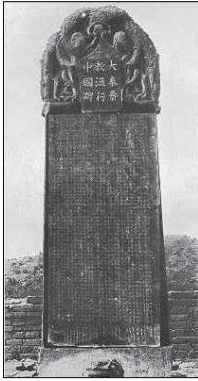
- 화베이(華北) 지방에서 2년 3작이 가능해져 농업 생산량 증가
- 차(茶) 재배 성행
- 상업 발달
- : 개원통보(621~), 비전(飛錢, 약속 어음, 일종의 지폐) 유통, 행(行, 상인 조합) 출현
- 장안, 뤼양, 양저우, 광저우 등 대도시 성장
- 시박사(市舶司) 설치(최초, 714)
- : 광저우, 무역 활동 감시와 세금 징수 담당

## 중국의 왕조 - 당(618 ~ 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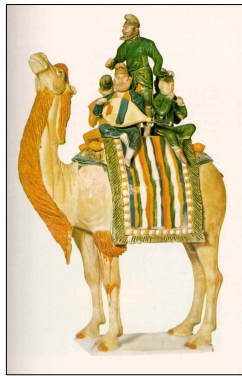
[문화]

### 01. ★국제적(개방적) 문화

- 동아시아 문화권(유교·한자·불교·울렁) 형성
- 수도 장안, 바둑판 모양으로 설계 → 발해의 상경성, 일본의 헤이조쿄 건설(710)에 영향
-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 그리스도교(경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외래 종교 전래



<대진 경교 유방 중국비>



<당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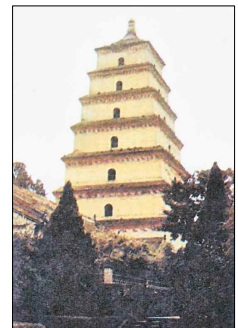
<창진시>

### 02. ★귀족적 문화

- 시문학 발달
  - : 귀족 취향의 시(詩) 유행 → 시성 두보(★『춘망』), 시선 이백 등이 활약
  - : 문장 → 한유, 유종원
- 유학의 발달
  - : 과거 시험의 기준
  - : 『오경정의(五經正義)』 → 공영달(574 ~ 648), 훈고학의 집대성

### 03. 종교의 발달

- 도교
  - : 황실의 보호, 각지에 도관(道觀, 도교 사원) 건립
- 불교
  - : 현장(600 ~ 664)의 『대당서역기』(비단길, 인도 기행문)
    - ↳ 현장이 가져온 불경 보관을 위한 대안탑(大雁塔) 건설
  - : 의정(635 ~ 713)의 『남해기귀내법전』(인도 여행기)
  - : 중국화 촉진
    - ↳ 혜능(638 ~ 713), 남종선(南宗禪) 창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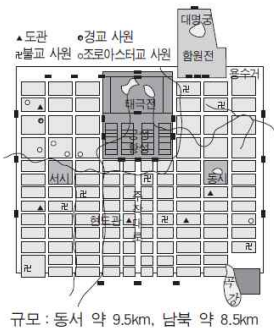
<대인탑(645)>



▶ 조·庸·조와 양세법

- ① 부역의 법은 모든 정(丁)에 대해 해마다 2석을 조(租)로 바치게 한다. 조(調)는 향토 특산물에 따라 비단 명주의 경우 모두 2장(丈)을, 면포의 경우 2장 5척을 바치게 한다. …… 정(丁)에 대해서는 해마다 20일의 역(役)을 부과한다. 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하루 3척의 비울로 용(庸), 현물을 징수한다. - 『구당서』
- ② 전국의 백성을 현재 거주한 지역에 호적 등기하고, 정남 혹은 중남에 관계없이 **토지와 재산의 다과에 따라 납세의 등급을 정한다.** 세액은 호세와 지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여름과 가을 양 시기로 나누어 징수한다.** - 『신당서』 양염전

▶ 7 ~ 8세기 동아시아 각 나라의 수도



<장안>



<상경>



<에이조코>

▶ 당의 기미 정책(『천제고고서』, p.43)



당 태종 때부터 본격화된 영토 확장은 8세기 중엽 절정을 이루었다. 당은 새로 정복한 땅에 도호부(都護府)를 두어 관리와 군대를 머물게 했는데, 동돌궐을 무너뜨린 뒤에는 안북 도호부, 서돌궐을 무너뜨린 뒤에는 안서 도호부를 두었다. 이처럼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토착 세력에 자치권을 주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가축을 다룰 때 사용하는 말고삐와 쇠코뚜레 [기미(羈縻)]에 비유하여 기미 정책이라고 한다.

개념 Check

- ① 당은 태종 때 율령 체제를 확립하고 ( )을 정복하는 등 발전하였으나 현종 때 일어난 ( ) 이후 절도사의 독자적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쇠퇴하였다.
- ② 당은 말기의 혼란 속에서 일어난 ( )을 계기로 쇠약해지다가 절도사 주전충에게 멸망하였다.
- ③ 안·사의 난을 전후하여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군사 제도는 ( )로 바뀌게 되었다.
- ④ 당 대의 공예 분야에서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특색을 지닌 ( )가 유행하였다.
- ⑤ 당 대 승려인 ( )은 인도를 순례하고 『대당서역기』를 저술하였다.

## 실전문제

### 01

밀줄 친 '이 제도'가 실시된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수능]

이 제도는 본래 각 지방에 파견된 중정관이 관할 지역의 여론을 토대로 인물을 평가하여 유능한 자를 중앙에 추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의 실력자들이 여론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원래 취지와 달리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높은 관직을 독점하였다.

- ① 청담사상이 유행하였다.
- ② 청명상하도가 제작되었다.
- ③ 공영달이 오경정의를 편찬하였다.
- ④ 이백, 두보 등의 시인이 활약하였다.
- ⑤ 서상기, 비파기 등의 원곡이 만들어졌다.

### 02

밀줄 친 '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017-9월 모의평가]

나라는 파괴되었어도 신하는 그대로요  
짐안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네  
시대를 슬퍼하여 꽃도 눈물 흘리고  
한 멧힌 이별에 나는 새도 놀라구나  
봉황불은 석 달이나 계속 오르고  
집에서 온 편지 너무나 소중하여라  
흰머리 굵으니 자꾸 짧아져  
이제는 비너도 꽃지 못하겠네

- 두보, 「춘망」 -



- ① 옥수수를 먹는 행인
- ② 홍루몽을 읽고 있는 관리
- ③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가는 신도
- ④ 선교 활동을 펼치는 예수회 신부
- ⑤ 회관에서 물품을 정리하는 산시 상인